

## 방글라데시 기도편지 43 (2021. 08. 11. 수)

한국은 말복이 지났군요. 이제 청명한 가을 하늘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8월 11일(수) 방국은 lock down을 해제 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이 운행되고 각종 상가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줄거나 사망자가 줄어서가 아니고 상황은 아직 변함없이 열악하지만 더 이상의 연장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될 뿐이니까요.

저희 아가페 스쿨도 오늘부터 홈아이들 외의 아이들을 등교 시켰습니다. 아직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근처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 오도록 결정했습니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 역시 상위 1%의 백신 혜택을 감사히 누리고 8월1일(일)에 방국에 돌아왔습니다. 기도로 하나된 교회로 지어져감을 느끼고 돌아온 감사의 여정이었습니다.

### 아가페 현 상황

1. 10명의 스텝들 가운데 3명이 백신 1차 접종을 했습니다. 2명은 이미 3개월 전에 1차를 맞았지만 2차 접종에 대해서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2. 오늘 8월 11일(수) 락다운 해제와 더불어 아가페는 스쿨과 널서리에 전 학생을 등교 시켰습니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복적이는 학교..  
이렇게 많이 모이면 아이들도  
좋은가 봅니다. 사벨의  
인원체크??? ㅋㅋ



널서리...  
넘어졌던 돌나가 왔네요. π-π  
다리꼬고 있는 돌나,보족기의 무란, 남자같지만 남자아닌  
마푸자...ㅎㅎㅎ . 그리고 누워있는 라킴.  
아가페에 저 따라서 다리꼬는 아이들이 돌나 외에 2명 더  
있어여 어찌나요... π-π 배울 걸 배워야지... ㅎ



루비나 교사반 - 구석에 루바이아, 메헤라즈, 압둘, 샤밌



모울리 교사반- 승급한 썬티아, 알라민, 싸디까, 파힘, 씨판(집중력이 서울대급이네요..)



리따 교사반-빠엘, 빌랄, 빠리, 사벨, 나킵, 에호싼...  
각기 만칭~~~ ㅎㅎㅎ

3. 널서리의 썬티아를 드디어 아가페 스쿨로 올렸습니다.  
조금씩 혼자 걸을 수도 있고 배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서입니다. 아버지가 더 좋아하네요. 거의 아가페에 온지 6~7년 만인가 봅니다. 이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져 갑니다.
4. 리빠(널서리 담당 교사)가 방송통신 고교과정을 등록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를 안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쁨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더군요.
5. 미국서 가져온 학습교구로 학습을 하고 놀기도 하는 우리 아이들도 방국 상위 1%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린 아무래도 렉스턴인가봐어~~~



레고조립-저는 포기했는데 아이들이 저보다 잘합니다.





저울을 이용한 수학 덧셈셈~~~



제가 감동한 동화 시간  
-다같이 보며 읽어주고 묻고 대답하기



깁깁대고 가져온 장난감 자동차와 소근육  
운동을 위한 곤충잡기 가위 놀이



6. 라킵 엄마는 기대 이상으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마다 청소하느라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지만 불평은 없습니다. 널서리 시간에 라킵 옆에서 테라피도 배우고 직접 밥도 먹이니 라킵도 기뻐하고 엄마도 좋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킵 누나 사만나는 공부를 잘 못하네요. ㅎ 그렇겠지요. 오랫동안 안하고 놀았으니... 코칭을 통해 나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라킵 엄마와 이제는 훌쩍 커버린 라킵  
- 이젠 애기가 아니고 청소년 같아여~~ ㅎ

#### 현 방국 상황

백신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지역마다 하루 200명 접종에 밤부터 500명 이상이 줄을 서 장사진을 이루고 이튿날은 백신이 없다며 줄 선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고 사람들은 우왕좌왕...

다카를 중심으로 공급되는 모더나는 공급부족으로 1차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지방은 시노팜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방국은 1일 확진자가 1만명 이상이고 사망자도 2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검체 수 대비 확진율은 30% 정도입니다.

#### 제 개인적인 상황

미국 일정에 대하여

- 1) 백신을 잘 맞고 돌아왔습니다. 2차가 1차에 비해 두통과 근육통이 너무 심해 5시간마다 타이레놀을 2알씩 3~4일을 먹었습니다. 자다가 너무 아파 깨서 약을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 2) 미국 뉴저지에 밤에 도착하여 이튿날 오전 1차 접종후 크리스찬아카데미(기도원)에서 1주일 가량 휴식을 취한 후 뉴저지 밀알 강원호 목사님, 강미경 사모님 부부께서 직접 차를 태워 곳곳을 데리고 다녀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정들 가운데 '주님이 왜 저한테 이렇게 잘 해주시나?' 싶었습니다.
- 3) 그동안 방국 밀알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차례로 점심 및 저녁을 대접해 주시며 우리 아이들의 상황을 물어봐 주시고 심지어 제 개인적인 상황까지 다 알고 계심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4) 백신 접종 결정이 1주일도 채 안되는 기간에 이루어 졌는데 마치 1년 전부터 계획되어져 있던 것처럼 모든 일정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모임도, 저도 주님의 일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 5) 아주 작은 일이지만 계산을 잘 못해서 가져간 로션이 다 떨어졌는데 이튿날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신 전 밀알 간사님이셨던 분이 로션을 주셨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기가 너무 막혀... 무슨 말을 하면 다 이루어 지니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 6) 백신만 맞고 와도 감사한데 식사에, 구경에, 그보다 더한 것은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0년대에 미국에 건너오셔서 밀알과 관계를 맺으며 장애 사역에 큰 역할을 하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직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돕고 계시며 매일 아침마다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듣고,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조금 외로웠는데...', 혼자 결정해야 하고 혼자 사역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끔 너무 버거웠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징징대기만 했는데 이분들이 다 하셨구나...' 더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도 멀리 계신 분들이어서 감도 안잡혔는데... 지구 반대편이라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이 일하고 계셨구나... 일면식도 없는 제게 수고한다 하시고 살갑게 대해주시고 선교사라고 극진히 대접해 주시는데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저를 왜 이리 환대해 주시나 싶었습니다.
- 7) 또한 장애 아동 아버님께서 귀한 휴가 중에도 시간을 내시어 맨하탄을 데려가 주시고 마지막 공항일까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바쁜 미국 생활에서 불가능한 일이셨을텐데도... 주님께 감사올립니다.
- 8) 돌아와서 누가복음 1장을 묵상하며 30절에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구절을 보며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은혜지...' '내가 그럴 만 해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였구나.' 제가 이러한 극진한 대접을 받을 만 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의 은혜로 아주 오래전에 준비된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부으셨구나를 깨닫고 주님의 어마어마한 은혜와 어떤 이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던들 이와 같을 수 없으리만큼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일정과 환대를 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 감사 또 감사드렸습니다.
- 9) 한국에서도 이와 같이 이 보잘 것 없는 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더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움직이게 하고 웃게도 하며 다시 일어나게도 합니다. 이번 깜짝 여정의 주제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한 것임을 다시 깨달으며 또 다시 엎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숙소였던 크리스찬아카데미에서 키우는 사슴들-간식으로 수박껍질 투척 ♪

2차 백신 맞던 날... 이뻐 그렇게 아플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 1) 이제 막 다시 열게 된 아가페 스쿨의 모든 아이들과 스텝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아가페 널서리 여아 돌나(뇌병변)가 집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는데 3시간 정도 기절한 후 깨어났지만 비틀거립니다. 그런데 오늘 널서리에 등교했네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3) 널서리 리빠 교사가 방송통신 고교 학습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주시고 힘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M개종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 4) 라킵 가정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누나 사만나에게 지혜 주시어서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라킵 엄마에게 건강 주시어서 라킵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새 아버지가 안정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5) 저를 비롯한 아가페 모든 스텝들이 마음과 힘과 지혜를 다하여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6) 그리고 방국 아가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시는 한국과 미국의 기도로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기쁨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눅1:29~30)***

주님 그 은혜가 제게 차고도 넘치나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